정교회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마크리나 수녀

제 4차 세계공의회 참석 교부들 주일
성 마크리나 수녀
제 5조, 조과복음 6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제 5조 부활찬양송 / 82, A 215
•주일 입당송 / 14, A 42
•성 교부들의 찬양송 / 85, B 178
•성당 찬양송
•주일 시기송 / 85, A 226
•사도경 : 디도 3:8~15 / 봉독서 538
•복음경 : 마태오 5:14~19 / 163, B 155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마크리나 수녀

여인으로 수덕의 삶의 아름다운 예를 보여준 분으로 성 대 바실리오스의 누이인 성 마크리나 수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7월 19일 축일로 기념하고 있는 마크리나 성녀는 가족에 헌신하였고, 그리스도교의 덕을 실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열 형제 중에서 맏이였고,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었으며, 형제들을 양육하는데 전념하였고, 형제 중 3명이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교회의 가장 위대한 교부 중의 한 분이신 성 대 바실리오스입니다. 바실리오스 성인은 누이인 마크리나 성녀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먼저는 성인이 변호사 일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마크리나 성녀가 바실리오스 성인이 탁월했던 신학과 교회적 활동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한 분의 좋은 어머니, 한 분의 헌신적인 누이는 보물과 같다는 것은 위대한 진리입니다. 역사의 모든 위대한 남자들의 뒤에 항상 드러나지 않은 영웅인 한 어머니, 한 배우자, 한 누이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착한 행실”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오5:16)

마태오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상에 모여든 군중들에게 설교하시며 가르치신 말씀에 대해 기록한 부분이다. 산상설교의 가르침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가를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암기할 정도로 그 뜻을 마음 깊이 이해하고 새겨서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 다시 말하면 모범이 되어 사람들이 본받아 하느님을 따르게 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단순히 좋은 일 하며 착하게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밖의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잘 이해해야 겠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착하게 좋은 일 하면서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자선과 사랑을 베풀고 사회적으로 많은 칭찬을 받으며, 또는 알게 모르게 좋은 일을 하면서 보람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곤 하는데, 그것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고 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느냐는 것이다. 물론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면 당연히 가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해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영혼의 구원을 못 받아 천국에 갈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다. 설사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착한 행실을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러면 ‘착한 행실’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그것은 회개와 용서이다. 비록 죄를 짓고 살았다 해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는 행실과 서로의 죄를 용서할 줄 아는 행실을 말한다. 회개는 자신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용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행위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착한 행실을 하여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고 천국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착한 행실은 외적인 행위에 앞서 내적인 자질을 갖추고 나아가면서 그에 맞는 행위를 통해 믿음의 완성을 이룩할 수 있다. 율법 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질책을 받은 것도 내적인 자질 없이 위선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하기에 앞서 자신을 먼저 잘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여 영적으로 풍부함을 갖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겠다.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모든 곳에서 불을 밝히는 촛불처럼!

우리가 초에 불을 밝힐 때마다 그 불꽃과 빛은 인간구원의 역사 속에서 불과 빛으로 나타나신 하느님을 생각하게 해준다. 초는 정교회 예배에서 폭넓게 쓰인다. 지성소 안 제단 위에 있는 등잔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일깨워준다.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 계시며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 예배가 끝나면 대부분의 초는 끄지만, 지성소 제단 위에 꺼지지 않고 언제나 불을 밝히는 등잔도 있다.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임재해 계시는 하느님에 대한 상징으로서 등잔의 불꽃은 꺼지는 일없이 계속 가물거린다.

많은 정교인들이 성당에 들어서며 초에 불을 밝힌다. 이는 단순한 행동이지만 깊은 의미가 있다. 그 의미는 성찬예배 때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어둠과 무지의 가림 막을 몰아낼 것이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실 것이라는 뜻이다.성당에 들어가며 초에 불을 밝히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며, 제자들처럼 우리도 날마다 그분의 빛을 우리 삶 속에서 밝히라는 부르심으로 믿는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그리고 어둡다고 불평하기보다는 그분처럼 우리도 사람들의 삶에 희망과 사랑의 촛불을 밝히라는 의미이다. 촛불을 밝히면서 우리는 시편의 작가가 한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 님 은 나 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주께서 내 생명의 피난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오?" (*시편 27:1*)

아타나시아

주보소식

대교구

⟹ 성 소피아 성당에 대한 세계총대주교 말씀.

지난 85년 동안 박물관으로 운영해왔던 콘스탄티노플의 성 소피아 성당을 이슬람 사원으로 바꾼 터키 정부의 최근 결정은 전 세계적인 반발을 가져왔습니다.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님께서는 터키 정부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에 "성 소피아 성당은 인류에 속해있습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2016년에 우리는 당시 종교 담당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성 소피아 성당의 지위를 바꾸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성당이 두 민족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화유산은 소유한 사람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속해있습니다. 그리고 터키 사람들은 이 문화유산의 보편성을 강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 "박물관으로서의 성 소피아 성당은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와의 만남, 연대 및 상호이해의 장소이자 상징입니다. 성 소피아 성당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게 되면 전 세계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교에 대항하게 될 것입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단합입니다."

불행하게도 터키 정부는 다른 정부,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 전 세계 그리스도교 교회, 무슬림 지식인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역사적 시간의 시계를 567년 전으로 돌려 성 소피아 성당을 이슬람 사원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리스도교 전체뿐만 아니라 세계 공동체에 대한 고통과 심각한 문제의 결정입니다. 터키는 세계역사의 기억에 특히, 검은 각인을 남기면서 정교회의 신성한 상징을 내부 정치적 편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유명한 모자이크들과 전반적으로 그리스도교 역사를 상기할 수 있는 유일한 문화유산들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에서 우리의 생각과 기도는 순교적인 세계총대주교청과 콘스탄티노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합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지난 7월 14일 화요일에 한국정교회 초창기 신자였던 게오르기오스 박순해 교우께서 안식하였습니다. 16일 목요일에는 장례식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느님께서 게오르기오스 교우의 영혼을 의인들이 안식을 누리는 곳으로 인도하시길 기원합니다.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주 간 예 식

7월 20일(월) 성 엘리야 예언자

7월 24일(금) 성 크리스티나 대순교자, 성 보리스 순교자

오전 9시 – 축일조과 및 성찬예배

발행처 : 한국 대교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

제20-29호/2020.7.19